

2019. 01. 13.

제목: 경계하라

본문 말씀: 요한복음 6:26-27

(공동번역)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 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천로역정'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크리스천'이라는 주인공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믿음 씨의 순교로 인해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광란을 억제하셨고, 그 틈에 크리스천은 허영의 마을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믿음 씨가 하늘 마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며 걸어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크리스천을 쫓아와서 자신과 함께 동행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소망 씨는 허영 마을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씨 사건을 지켜보면서 변화되어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탈출할 때 쫓아왔던 것입니다. 소망 씨는, 자신뿐만 아니라 허영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24)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리스천은 소망 씨와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두 사람이 길을 막 나서자마자, 자신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사심"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경계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경계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익명성'입니다. 익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올린 글 때문에 온갖 험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익명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짓을 하기 때문에 익명을 고수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익명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투명하며 진실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결코 자신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으며, 구세주임을 나타내셨습니다.

개인의 기질에 따라 부끄러워서 익명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기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고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진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성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에 걸맞는 내 이름이 숨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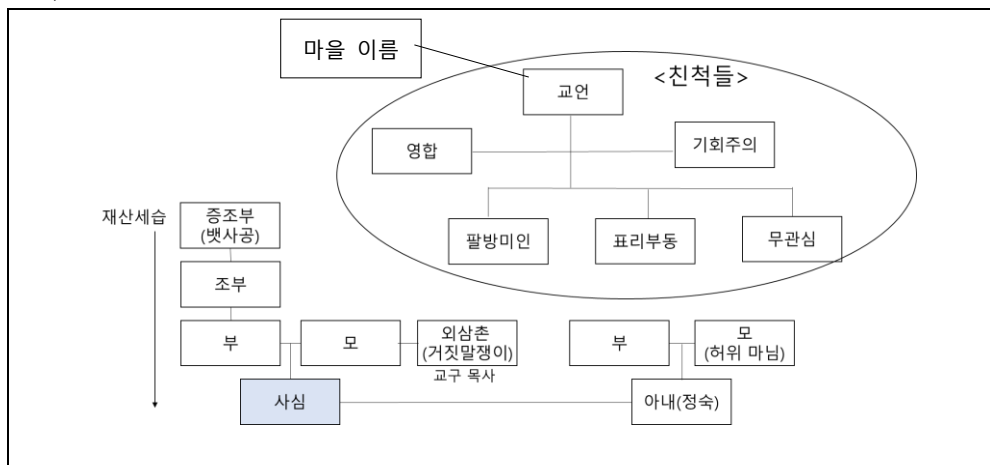
서는 안 됩니다. 잘못을 했을 때에도, 누가 했냐고 하면, 제가 했습니다. 나, 이정민이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즉시 인정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 전달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교회소개란에 다섯 가지의 Our Promise가 있습니다. 지금 잠시 확인해 봅시다. 주보에 있는 큐알코드를 찍어서 홈페이지를 열고 교회소개란으로 갑시다. 찾았으면, 1번만 다함께 읽습니다. 시작~

1) 우리는 실명으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전할 때,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다들 '그건 알 필요없고~'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은 결코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본인을 밝힐 수 없는 말은, 스스로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순식간에 퍼집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런 루머를 전달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명으로 거론된 이야기가 아니면,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그 이야기에 책임질 각오로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약속을 꼭 지킵시다!

'익명성'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서두에서 잠시 나왔습니다만, 지금부터 본격적인 경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사심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온갖 경계할 것들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사심 씨의 가계도를 보겠습니다.



가계도를 보면 알겠지만, 사심 씨는 정말로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선친의 이름이 마을 이름이 될 정도면 정말 엄청나지요. 사심 씨는 자신의 가계도를 설명해 주면서, 덧붙여서 자신들이 고수하는 신념 두 가지를 말해 줍니다. 이들의 이름을 보면 대강 짐작이 가지요?

첫째, 시대사조에 역행하려고 애쓰지 않는다.

둘째, 신앙이 순탄한 길을 가고 있을 때 가장 열심히 나선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역경을 돌파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런 고생을 싫어하는 것 같이 보이는군요. 그뿐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려면, 종교가 비단옷을 입고 있을 때거나, 누더기를 입고 있을 때거나, 가리지 않고 줄곧 믿어야 하지, 종교가 환영을 받으며 대

로를 확보할 때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을 때에도 믿어야 됩니다. 내 제안을 따르지 않는 한 한 발자국도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천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즉시 “네, 당연하지요.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지요? 우리는 자꾸 중간 지대에 서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스크르테이프의 편지에서도 보았듯이, 사탄은 평화주의자를 가장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차라리 차거나 덩거나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정답이 뭔지는 알겠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하면서 상의해 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크리스천으로 안 살거야?” 그러면 다들 “아니... 그건 아닌데요...”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다!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넌크리스천으로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심 씨는 크리스천과 동행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뒤떨어져 혼자서 걷다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 세 사람의 동창생과 동행합니다. 이들의 이름은, 물욕, 애전, 구두쇠인데, 이들은 모두 ‘불평’이라고 하는 스승에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배운 대로 잘 실천해 온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이들도 크리스천처럼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사심 씨와 동창들은, 앞서 걷고 있는 두 사람(크리스천과 소망 씨)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평가를 하면서 걸어갑니다. 이들은 두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못된 성격을 가졌다. 자기 의를 지나치게 행한다. 너무나 강직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남의 의견은 경시한다.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자신들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동행하기를 거부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급기야, 이제는 논쟁거리를 가지고 크리스천에게 다가갑니다. 자, 여러분도 이 논쟁에 함께 참여해 봅시다.

<논제>

어떤 행복이 눈앞에 놓여 있을 때, 그 행복을 차지하는 한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써 신앙을 드러내는 것(겉모양만으로도 비상한 열성을 표시하는 것)이 올바른가, 그른가?

1) 목사의 예

사례비가 너무 적어서 현재의 사례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 방법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 자주 열렬하게 하며, 사람들의 기질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고수해왔던 주장들도 더러 수정한다. 옳은가, 그른가?

자, O와 X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보수를 더 받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은 합당한 것이며 인간이 그렇게 지음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만큼 가능한 한 소득을 더 얻으려고 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다.

둘째, 보수를 더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가 더 부지런하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 열심히 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더 개선된 목사가 되는 것이니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일이다.

셋째, 사람들의 기질을 맞추기 위해 봉사하는 것은 자기 주장과 원칙들을 내려놓는 것이기에, 이것은 자기 희생적인 태도이며 사람을 이끄는 힘을 가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목사의 직책을 맡기에 더 적격자라는 것을 증명한다.

넷째, 적은 보수를 받던 목사가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노력한 것 자체를 탐욕스런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 그로 인해 더 개선되고 더 부지런해졌음을 인정하고, 오히려 그가 직무수행을 더 잘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을 칭찬해야 한다.

이 중에서 O가 몇 개 있습니까?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가요?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진리를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요? 뭐가 정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권해주는 정답과 성경이 제시하는 정답은 무엇입니까?

좀 더 쉬울 수 있는, 다음의 예를 봅시다.

2) 상인의 예

가난하던 한 상인이 부자가 되고 싶어한다. 그 방법으로, 더 열성적인 신앙을 갖고 적극적으로 교회에 출석하여 인맥을 넓혔다. 그 결과 큰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돈이 많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은 고객들을 자기 상점으로 끌 수 있게 되었다. 옳은가, 그른가?

이것도 O와 X로 대답해 보세요.

첫째, 어떤 목적을 위해서건 열성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선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다.

둘째, 열성적인 신앙을 드러내어서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나 자기 상점으로 더 많은 고객을 끄는 것은 결코 부당한 행동이 아니다.

셋째, 신앙 생활을 열성적으로 함으로써,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을 얻으니 좋고, 그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 갈 수 있으니 좋은 것이다.

넷째, 좋은 일인 열성적인 신앙 생활로 말미암아서 부자 배우자를 얻으니 좋고, 좋은 고객들을 많이 끄니 좋고, 많은 이득을 보니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좋고 이로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신앙의 열성을 보이는 것은 좋은 일이다.

O가 몇 개 있습니까? 판별하기가 더 어렵나요? 위의 주장은 모두 사심 씨와 동창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 정답은 모두 X여야 합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신앙이 사용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결코 내 신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익명성이 경계해야 할 것의 기본이라면, 기복신앙은 경계해야 할 것의 본질입니다.

사심 씨의 가계에 흐르는 사상이 모두 기복신앙이지요. 신앙을 통해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출되었고 몇 대에 걸쳐서 부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에 교수가 몇이고 의사가 몇이고 사장이 몇이다, 하나님을 믿는 집안은 다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많은 집안이 이런 사상으로 가득합니다. 제 주변에도 흔하며, 제가 직접 목격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가까운 사람이면 마음이 더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기복신앙을 물려주실 겁니까!

존 번연은 1600년대 사람입니다. 1660년 찰스2세가 등극하여 국교신앙이 강요되면서 국교 외의 단 종파 설교는 하지 않는다고 선서한 목사들에게만 목사 자격을 준다는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그 때 많은 목사들이 이 선서에 응했지만, 존 번연은 선서를 거부하고 청교도주의 설교를 계속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볼 영화 "신은 죽지 않았다3"에서도 한 목사가 설교문을 국가에 제출하라는 요구를 거부한 것이 문제가 되어 마녀사냥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오늘날의 영국 현실입니다. 그리고 영국의 현실이 곧 한국의 미래라고 해석하고 있는 신학자들도 많고요.

이 책, 천로역정은 1675년에 존 번연이 2번 째로 투옥되었을 때 집필한 책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400년 전의 글입니다. 조선왕조가 500년인데, 우리는 이렇게 긴 역사가 흐르는 동안 아직까지도 기복신앙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신앙을, 복을 받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더이상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존 번연이 그토록 목숨바쳐 설파했던 것이, 4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청산되지 않는 것은, 정말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간혹 유명 대학 입학과 취업과 승진과 연봉상승을 위해서 신앙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도 모르게 저절로 가슴을 치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요한복음 6:26-27)-공동번역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이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에게 그 권능을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